형제님! ‘지구촌교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호스피스자원봉사팀 김진호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행 20:35)

최근 보건복지부의 암 통계 발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은 기대수명(83.6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남자 39.1%(5명 중 2명), 여자 36.0%(3명 중 1명)이고, 중앙치매센터의 치매 통계 자료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노인 중 추정 치매유병률은 7.3%입니다.

어느 날 수지3지구 물망초1목장 모임에서 유신순 권사님께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로 섬기고 계신다는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는 과거 삼성전자 수원자원봉사센터 업무총괄을 담당할 때 연간 예산 약 50억 원을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추진하는 자원봉사 활동과 지구촌교회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3월 ‘지구촌교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과정에 참가했습니다. 교육생들은 대부분 자매님들이었는데 형제님들도 4~5명 계셨습니다. 자매님들 중에는 잘 알고 지내는 권사님, 집사님들로 몇 분 계셔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호스피스의 개념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이내라고 진단 내려진 환자를 신체적, 정신적, 영적 지원 등을 환자 요구와 필요에 맞추어 돌봄을 제공하는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매주 3시간씩 8주 동안 교육에 참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는 날은 동영상 강의를 들은 후 소감문을 열심히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8주 동안 진행된 교육 과정을 수강하면서 난치병으로 알려진 암, 치매 등에 대해 이해를 하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7주차에 진행된 <임종기 환자와 가족들의 실제적, 필수적 돌봄 요소(영적 돌봄)> 강의를 들을 때는 3년 전 하늘나라에 가신 선친이 살아 계실 때 치매가 있으셔서 요양원에 맡겨 놓은 채 제대로 효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인해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 계신 어머님을 더욱 잘 모셔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시골에 계신 어머님을 찾아 뵈었을 때 난생 처음 어머님의 발을 따뜻한 물로 씻어 드리고 발 마사지를 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교육을 수강하면서 누구에게나 나이가 많아지면 찾아올 수 있는 암, 치매 등으로 인한 아픔과 대처 방법 등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구촌교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8주 과정을 모두 마친 후 최성은 담임목사님의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지구촌교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입니다”

교육 수강 기간 동안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 기관에 대한 소개를 들으면서 여러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수고하시는 지구촌교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많이 계심을 알 수 있었고 저의 자원봉사 활동 장소는 보바스기념병원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2023년 12월 보바스기념병원의 자원봉사자 교육을 수료한 후 2024년 1월부터 자원봉사자로 섬김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자원봉사 활동 첫날, 자원봉사 활동 12년 경력의 김혜선 권사님께서 휠체어 사용 방법, 말벗과 산책 활동 등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해 주셨고 실습도 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자원봉사 활동 2시간이 금방 지나간 첫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 활동일부터는 혼자서 환자분의 휠체어를 밀면서 말벗과 산책을 해드리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밀면서 산책하는 동안에 대화가 가능하신 분들은 고향, 가족, 좋아하는 노래 등등 다양한 대화를 나누고,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은 휠체어를 밀어 드리면서 작은 목소리로 찬양을 불러 드리기도 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한지 몇 주가 지나면서 서로 얼굴을 조금씩 알게 되어 나누는 대화 양이 약간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했어요. 다음 주에 또 오실 거지요?”

“네 다음 주에 뵙게요.”

“나는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시군요. 예수님을 믿으시니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에 가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럼요, 그래서 병원에 있지만 마음은 평안해요.”

자원봉사 활동은 외롭고 힘든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가는 시간이지만 돌아올 때는 뿌듯한 보람과 마음의 감동이 가득하게 됩니다. 자원봉사 활동 현장에 가면 형제님들의 역할이 많이 필요하지만 자원봉사에 참가하고 있는 형제님들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 데 추수할 일꾼들이 적은 것이지요.

올해 ‘지구촌교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과정이 2024.3.12(화)~4.30(화)까지 8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형제님! ‘지구촌교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은 형제님들의 응답과 참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 지구촌교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참가 모집 포스터를 함께 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호 연락처 010-8965-08735